

- **주요 뉴스:** 미국 트럼프, 아란 하메네이와의 직접 면담 기대 아란은 쿠웨이트 내 미군 공격
 -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이션 심화.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인상 불필요 언급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금리인상 시사.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160엔 돌파
- **해외시각:** 미국 경제, 일부 건전성 지표 양호하지만 AI 집중화 등의 위험 내포
 - 美中 기술전쟁 휴전, 공급망 갈등 등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
 - ECB, 금리인상 단행 시 경기회복 지연 등의 과거 실수 반복할 소지
- **국제금융시장:** 미국 주가 하락[-0.7%],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중동전쟁 긴장 고조,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 유가 상승 등으로 0.7%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중동전쟁 협상 난항,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3%, 0.1%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5월 ADP 민간 고용, 인플레이션 우려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6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533.1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534.0원, 1.16% 상승). 한국 CDS 강보합

6/3일 전일대비				6/3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7,553.7	-0.74%	국채 금리 10y	미국	4.49%	+5bp
	유럽	621.19	-0.66%		독일	3.04%	+6bp
	일본	68,402	+2.50%		일본	2.64%	+6bp
	한국	휴장	-	CDS	한국	23bp	+0bp
환율	달러지수	99.52	+0.30%	위험 지표	VIX	16.06	+1.84%
	유로화	1.1597	-0.29%	원자재	브렌트유	97.81	+1.89%
	엔화	160.07	-0.10%		금	4,434.8	-1.20%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600,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환율은 +(-)는 강세(약세).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트럼프, 이란 하메네이와의 직접 면담 기대. 이란은 쿠웨이트 내 미군 공격**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이란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직접 만나고 싶다고 언급. 또한 이란은 핵무기를 갖지 않을 것이며, 많은 좋은 일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첨언. 아울러 이란과의 합의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며 낙관적 시각 유지
 - 다만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으며, 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 지상군 투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피력
 -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는 바레인과 쿠웨이트 내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주장. 그러나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란의 주장이 거짓이며, 이란의 모든 공격은 실패했다고 발표. 쿠웨이트는 이란의 자국 내 국제공항 공격으로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이란 측은 모든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반박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베이지북, 인플레이션 심화. 뉴욕 연은 총재는 금리인상 불필요 언급**
 - 베이지북에 따르면,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제는 완만한 성장을 이어갔으나 고용은 정체되고 에너지 가격 급등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운송, 식료품, 비료 등 다른 부문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
 - 뉴욕 연은의 윌리엄스 총재는 현재 금리가 적절한 수준이며, 당분간 금리인상 혹은 인하가 필요하지는 않다고 언급. 다만 달러스 연은의 로건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연율 2%)까지 낮추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발언
 - 한편, 베센트 재무장관은 고용이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단기 충격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견 피력. 이는 경제 관련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
- **미국,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국가에 12.5% 관세 부과**
 -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EU 등 포함)의 제품에는 10% 관세를, 원천 금지하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국가(한국, 중국, 일본 등 포함)의 제품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중국 외교부는 이와 같은 일방적 관세 조치를 반대한다고 발표

■ 미국 5월 ADP 민간 고용, 큰 폭 증가. 5월 ISM 서비스 PMI는 전월비 상승

- 5월 ADP 민간 고용은 전월비 12.2만명 늘어 예상치(12.0만명) 상회했으며, 이는 '25년 1월 이후 최대폭 증가. 이번 결과는 중동발 에너지 비용 증가에도 구인이 증가하고 해고는 감소하여 고용이 안정적 상태임을 시사
- 5월 ISM 서비스 PMI는 54.5를 기록, 전월(53.6) 대비 상승. 이번 결과는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을 우려한 기업들의 선수요 등이 작용한 결과. 이에 따라 세부항목 가운데 신규수주 및 재고 등이 호조. 한편, 4월 제조업 수주는 전월비 4.8% 늘어 작년 5월 이후 최대폭 증가

■ Broadcom, 3/4분기 AI 매출 전망 부진. Morgan Stanley는 칩플레이션 경고

- Broadcom의 2/4분기 매출과 이익은 예상치 상회했으나, 3/4분기 매출 전망은 160억달러로 예상치(172억달러) 하회. 이에 시간외 시장에서 주가 하락. 한편, Morgan Stanley는 지난 1년 동안 메모리 가격이 6배 급등했으며, 이에 따른 문제는 데이터센터 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

■ ECB, 인플레이션 리스크 '22년보다 심각해질 우려. 은행에는 AI 리스크 대책 요구

-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블로그를 통해 역내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22년에 비해 온건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일부 상황은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게시. 한편, ECB의 엘더슨 이사는 역내 주요 은행의 인사들과 만나 최신 AI 모델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 협의

■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 금리인상 시사.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160엔 돌파

- 우에다 총재는 중동 정세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금리인상 적절성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 또한 고유가로 물가상승률이 예상을 넘어서는 위험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첨언. 이러한 발언은 15~16일 예정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
- 한편, 이날 달러화에 대한 엔화 환율은 달러당 160엔을 넘어섰으며, 이에 시장에서는 당국의 시장 개입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6/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은 데일리 총재 발언, 주간 신규실업급여 청구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제, 일부 건전성 지표 양호하지만 AI 집중화 등의 위험 내포 - Financial Times

(America's AI boom is carrying more than investors admit)

- 미국 경제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들은 상이한 모습. 소비지출 및 기업실적 등은 양호하지만 실질 가처분 소득 증가율, 고용창출은 부진. 이러한 현상은 수익, 자본지출 등이 하이퍼스케일러 등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집중하는 소수 AI 기업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 실제로 AI 기업은 S&P500 시가총액의 약 40%를 차지
- 다수 기업의 이익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AI 기업 효과로 전체 경제는 양호한 모습을 나타내고 증시가 호황이라는 착시도 유발. AI 투자 경쟁 심화로 인한 관련 분야 기업의 수익에 대한 과대평가는 기업 전반을 정확하게 평가하는데 장애물로 작용. AI 낙관에 기댄 경제 평가는 기반이 취약함을 시사

■ 美中 기술전쟁 휴전, 공급망 갈등 등으로 지속 여부는 불투명 - Financial Times

(The China-US tech truce is fragile)

- 美中 양국은 서로 유화적 태도를 보이거나 지속 가능성에 의문 제기. 이는 공급망 갈등 재발 가능성 때문. 이에 미국 의회는 더욱 강경한 對中 수출통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 기업에 압력을 행사하며 갈등 고조 상황을 대비
- 다만, 미국은 중국産 희토류 등의 공급망 위협에 취약해 중국 의존도 개선을 위한 시간이 필요.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첨단산업 경쟁에서 유리한 입장. 미국이 현재 중국보다 우수한 AI 컴퓨팅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은 AI가 지정학적 구도를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있어 해당 상황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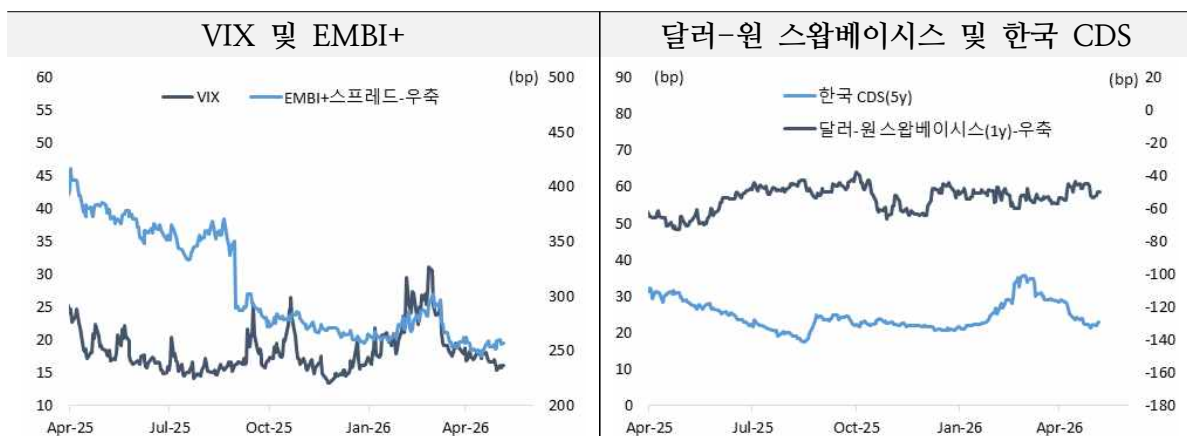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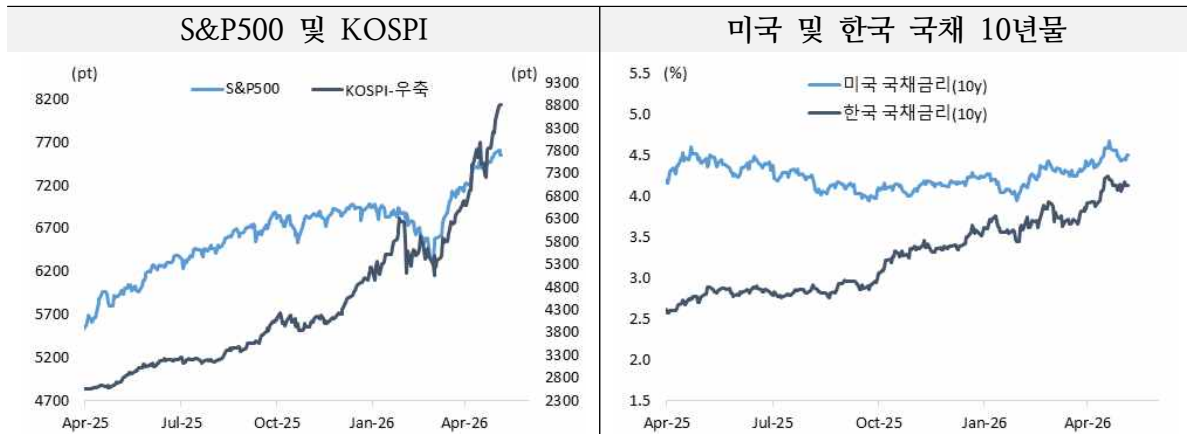
■ ECB, 금리인상 단행 시 경기회복 지연 등의 과거 실수 반복할 소지 - WSJ

(ECB Rate Hike Risks Repeat of Earlier Misstep)

- 유로존 5월 인플레이션은 3.2%로 ECB 목표치(2%) 크게 상회. 이에 ECB 인사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임금인상→물가상승의 악순환을 우려. 아울러 '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인플레이션 늑장 대응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6월 금리인상 가능성은 큰 편
- 하지만, 유로존 경제는 올해 첫 3개월간 매우 부진했고, 2/4분기도 경기 수축 국면에 진입(4,5월 기업 설문조사)할 위험 내재. 또한, 전쟁發 물가 상승이 단기적 현상에 그칠 가능성, 에너지 수요 감소, 임금 협상의 연초 집중 등을 고려하면 성급한 금리인상은 경기 회복을 지연시켜, 과거 실수('08, '11년)를 되풀이할 우려

- **하이퍼스케일러의 주식 발행, AI 투자 급증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 - Financial Times**
(Hyperscalers and the equity tap: more to come)
 - Alphabet은 AI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약 860억 달러의 부채를 조달한 데 이어, 최근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800억 달러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 발표 후 주가가 약 4% 하락했지만 투자자 반응은 비교적 온건한 편
 - 하이퍼스케일러의 AI 투자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채 발행 비용이 상승하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활용한 주식 발행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본 조달 수단으로 부각. 이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추가적인 주식 발행을 검토할 가능성
 - 다만 투자자들이 AI 자본지출을 점점 더 선별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다른 기업의 주식 발행에 대한 시장 반응은 불확실. 빅테크가 점차 자본집약적 인프라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앞으로 주주환원의 핵심이었던 자사주 매입도 줄어들 소지
- **AI 관련 대규모 채권 발행, 공급 증가 등으로 국채시장 혼란 심화될 소지 - Reuters**
(AI building boom ripples through inflation-hit Treasury market)
- **워시 체제의 연준, 커뮤니케이션 축소가 아닌 개선이 필요 - 블룸버그**
(Walsh's Fed requires better communication, not less)
- **미국 증시의 경기 예측 효과, 과도한 실적 기대 반영으로 미흡 - The Economist**
(Want to know the future? Don't trust the stockmarket)
- **글로벌 기업, 트럼프의 301조 적용 범위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 가중 - 블룸버그**
(Global Businesses Worry About Fresh Dose of US Tariff Complexity)
- **아시아 국가, 에너지 가격 상승發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인상 고려 - 블룸버그**
(Even the Most Patient Succumb to Inflation)

금융시장 주요 지표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